



# 도약의 **스텝**

**UI** + Leaping Board

인천대학교 소식

University of Incheon Newsletter

2011 ● vol.52





## contents

### UI, **Leaping** TO THE WORLD

- 04 **Special Theme 1** \_ 동북아 교육 허브, 인천대학교
- 06 **Special Theme 2** \_ 중국학연구소 / 공자아카데미
- 08 **UI Global Standard** \_ UI 글로벌 캠퍼스

### UI, **Leaping** TOWARDS THE FUTURE

- 10 **To The World Best** \_ 인천대학교 홍보관
- 12 **Dynamic UI** \_ 인천대학교 학산도서관
- 14 **Future Leader** \_ 백용선 학생 / 경시서 팀
- 16 **UI Mentor** \_ 물리학과 김정용 교수
- 18 **Pride of UI** \_ 경림건설(주) 대표 황규철 동문 / 판화가 남궁산 동문
- 22 **Innovation Incubator** \_ 동북아국제통상학부

### UI, **Leaping** WITH THE COMMUNITY

- 24 **Regional Potential** \_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 26 **Innovation Project** \_ 모바일 랩 서비스 지원시스템
- 28 **Blue Engine** \_ 클린에너지노테크 / 과학영재교육원
- 30 **Wide Network** \_ 세계모의유엔회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특강
  
- 32 **UI is Now** \_ 인천대학교 소식
- 36 발전기금 소개
- 37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 39 발전기금 출연자

# 도약의 창

UI + Leaping Board

동북아의 중심에서 선진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천대학교,  
글로벌 비전을 향한 열정과 도전으로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명문으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세계를 향해 열린 인천대학교의 힘, 플러스 리핑 보드!

국제교류의  
새로운 비전 제시

인천대학교  
동북아 교육 허브로

도약하다



인천대학교가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급부상중인 중국과의 국제교류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은 지난 7월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5개 도시를 연쇄적으로 방문, 중국의 중심대학들과 잇달아 협의를 갖고 복수학위제 등 굵직한 교류 확대에 합의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국 내 동북아 거점대학으로서의 인천대학교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천진대 등 8개 명문 대학과 국제교류 확대

199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 경제에 새로운 수퍼 파워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인천대학교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은 방문단을 이끌고 지난 7월 7일 중국으로 향했다. 1주일 남짓 짧은 기간에 대련, 천진, 하얼빈, 장춘, 위해 등 중국 내 5개 도시를 방문하는 강행군 일정이었다. 이동거리는 서울~부산을 10번 왕복하는 거리에 해당하는 9,000km에 달했다. 방문대학만 해도 천진대와 남개대, 대련이공대, 대련외대, 하얼빈공대, 동북전력대, 천진외대, 산둥대 위해캠퍼스 등 8개에 달했다. 이들 중국대학은 인천대의 자매대학으로 그동안에도 교환학생제나 교수 교차방문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교류를 해왔지만, 이번 방문은 복수학위제 등 새로운 개념의 교류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제교류

안경수 총장은 자매대학 총장들과의 연쇄회동을 통해서 복수학위제, 공동연구,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등 굵직하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제교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학교별로는 천진대, 남개대, 산둥대 위해캠퍼스와 학부생을 대상으로 '2+2' 복수학위제(2년간 본교 수학 후 자매대학에서 나머지 2년을 공부할 경우 2개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기로 합의했다. 하얼빈공대 및 동북전력대와는 방학기간을 이용해 인턴십 체험을 포함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데 상호 합의했다. 특히 천진대와 남개대는 중국 10대 중점대학으로 꼽히는 명문대학으로, 천진대는 116년 전통을 자랑하며 남개대는 모택동 전 중국국가주석과 함께 중국공산당을 이끌었던 주은래 전 총리의 모교이기도 하다. 중국 내 우수 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추진을 계기로 동북아 거점대학으로서의 인천대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경수 총장의 중국 자매대학 방문 직후인 7월 27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천진대학생 3명이 인천대가 마련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중이고, 이 대학 학부생 6명이 8월 1일부터 6일까지 인천대를 방문,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또한 하얼빈공대 대학원생들도 7월 말 인천대를 방문, 인천대 교수들로부터 1대1 지도를 받고 있다. 중국대학 방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 중국의 해외유학 열기가 인천으로

인천대학교가 중국대학과의 교류확대를 꾀하는 데는 중국정부의 해외유학 장려정책과 맞물려 있다. 중국의 해외유학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중국 교육계의 통계에 따르면 2001~2005년 해외유학생 누적숫자는 59만 8,500명(자비유학 54만 5,000명)이었다. 2003년에는 연간 기준 해외유학생 수가 2만 100명에 달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6년에는 중국의 해외유학생 누적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정부는 해외유학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장학금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해외유학생 숫자가 크게 늘었지만, 상당수 중국학생은 미국, 유럽 등 영어권 수학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대가 중국 자매대학과의 교류확대에 나선 것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중국의 해외유학 수요를 인천대 쪽으로 돌리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동북아 국제 교류의 주 무대로

인천대학교는 중국 자매대학과의 교류가 확대될 경우 중국의 우수인재 유치는 물론, 중국 우수대학에서 인천대생들이 수학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수인재도 끌어들이고, 인천대생들의 해외 우수대학 수학기회도 늘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안경수 총장은 2009년 취임 이후 줄곧 국제교류 확대에 공을 들여왔으며 총장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인천대의 해외 자매대학 숫자는 2011년 7월 말 현재 139개교에 달하고 있다. 안경수 총장의 이같은 노력으로 인천대학교는 국제화 공헌을 인정받아 2011년 대한민국 참교육 대상 국제화 협력 부문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동북아 거점대학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인천대학교의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 광활한 중국 대륙, 인천대학교 안에서 문화의 꽃 피우다



안성재 교수  
(중국학연구소 소장)

## 중국학 연구의 新 중심 인천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중국의 정치, 경제, 법률, 역사, 사회, 문화 등 중국에 대해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중국학연구소는 중국관련 국내외 학술세미나 개최뿐 아니라 학술 강좌 등 문화 행사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일반 시민의 '중국 바로 알기'를 돕고 있다. 그간 중국을 비롯한 국내외 학자들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중국학을 발전시켜온 중국학연구소는 그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7년 중국 북경 사회과학원의 교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도 하였다.

또한 한중세미나를 통한 자연과학, 공학까지 섭렵하는 등 중국 관련의 다양한 학문을 종합하는 전문 학술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천이라는 지정학적, 역사적 이점에 비하여 중국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과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인천대학교 중국학연구소는 인천지역 중국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인천대학교 중국학연구소는 지난 학기 학생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학술강좌 '차이나 포커스'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2011년 북경대

국제학술회의(리더포럼)'에 참가하였을 뿐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를 모아 외교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분야에 걸친 한중관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8월 27일부터 1박 2일간 국제학술대회인 한중문화논단(한중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국학 연구와 보급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성재 중국학연구소 소장은 "이번에 개최한 한중문화논단은 작년까지 12회에 걸쳐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로서, 참가인원 150~200명, 참가국 9개국에 이르는 대형 국제학술대회"라며, "기존에 중국 어문학, 역사, 철학, 문화 부문에 걸쳐 한국과 중국의 학술 교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한중포럼을 우리 연구소에서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사상 및 사회과학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범중국학 국제학술대회로서의 규모를 갖추어 그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한중포럼 개최를 통해 인천대학교, 나아가 아시아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천 지역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우수한 연구진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중국학 연구의 새 장을 열고 있는 인천대학교 중국학연구소가 중국학 연구의 본산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한다.

13억의 인구나 세계 4위의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광활한 대륙의 나라 중국.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올해 초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등 중국과 동북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뿐 아니라 항만과 공항 등 천혜의 조건을 가진 인천의 동북아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인천대학교는 지난 수년간 중국학연구소와 공자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중국 관련 분야를 특화해왔다. 중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중국 연구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인천대학교의 쌍두마차, 중국학연구소와 공자아카데미를 소개한다.



### 중국에 대한 성실한 길잡이 인천대학교 공자아카데미 [孔子學院]

공자아카데미는 세계 각국 사람들의 중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 교육부가 세계 각 나라의 대학교와 합작으로 설립 운영하는 비영리 중국 전문 교육기관이다. 2004년 서울에 세계 최초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세계 96개국 322개 공자아카데미와 369개 공자학당 등 총 691개의 기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인천대학교 공자아카데미는 지난 2009년 8월 중국 대련외국어대학교와 합작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직 대련외국어대학교 교수 및 원어민 강사가 파견되어 중국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공자아카데미 중국어 강좌는 중국어 사성 발음 표현 및 간단한 기본문형부터 시작하는 '입문반'부터 중국 생활 및 문화와 관련된 원어민의 실제 대화법을 학습하는 고급반까지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유학 및 취직에 필요한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新 HSK 대비반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중국어반도 운영하고 있다. 인천대학교 공자아카데미는 중국어 교육뿐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언어연수 및 문화체험을 통하여 중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중국 예술단 초청공연, 무료 문화강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중국과 세계 각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 학생, 어린이 등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그 문이 열려 있는 인천대학교 공자아카데미는 현재 인천지방경찰청 경찰을 대상으로 중국어 무료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 중국어 및 중국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만에 다시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강승현 씨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키우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젊었을 적 6개월 정도 중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왔지요. 그 뒤 10년 동안 중국어를 공부하지 못하다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중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인천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면서 공자아카데미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는 강승현 씨는 직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으로 IT 특화 관련 박사과정 유학을 계획 중이다. “인천대학교 공자아카데미는 일반 학원들에 비해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원 주도의 일방적인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중국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8월의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공자아카데미의 수강생들. 광활한 중국 대륙을 향한 이들의 열정이 인천대 안에서 희망이라는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다.

# 세계로 가는 대학, 인천대학교

세계 명문 대학, 인천대학교에 입성하다



## 태양광 연구의 선두주자, 스페인 말라가대 인천사무소 운영



인천대학교는 지난 3월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인천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주 말라가시에 소재한 말라가대학교는 지난해 대학경쟁력 강화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스페인 명문대학이다. 유럽 2위 태양광 전지 제조기업인 이소포톤(ISOFOTON) 본사가 위치한 말라가시는 일 년 내내 일조량이 많아 태양광 연구가 활발하다.

스페인 대학과의 국제 교류를 준비하던 인천대학교는 말라가대학교의 가능성에 주목, 작년 1월 포괄적 교류 협정을 맺고 그 결실로 지난 3월 말라가대학교의 인천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이어 4월에는 말라가대학교 내에 인천대 말라가사무소가 설치되었다. 말라가대 인천사무소는 인천대에서 연수 중인 말라가대 학생 10명의 학습 연구를 지원할 뿐 아니라 인천-말라가시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이끌고 있다.

특히 말라가대 인천사무소 개소식에는 인천대와 인천상공회의소, 송도테크노파크, 말라가대, 말라가상공회의소, 말라가시 안달루시아 테크놀로지파크 등 양국의 6개 기관이 참여하여 '인천-말라가 산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태양광 발전, 바이오, 클린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인천-말라가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열어 두 도시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대학 간 교류를 넘어 양국의 지역발전 협력까지 이루어낸 인천대와 말라가대의 국제교류, 양 대학 사무소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인천시와 말라가시의 국제교류는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인천대학교가 세계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미래지도자 프로그램, SAF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는 한편, 송도 제2캠퍼스를 글로벌 Joint R&D 캠퍼스로 조성하기 위해서 해외 명문 대학들의 분교 및 세계적 연구소 유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3월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인천사무소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 6월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한국분원 설립준비사무소 개소 등 글로벌 명문을 향한 인천대의 발전 구상이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다.



**에너지, 생명공학, 기초과학 분야의 메카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한국분원 설립**

스페인 말라가대학교 인천사무소 운영에 이어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한국분원(BKRI, Berkeley Korea Research Institute)이 오는 9월 인천대학교에 설립된다. 인천대학교는 지난 6월 안경수 인천대 총장과 로



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의 조지 스무트 박사 등 양 대학과 연구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분원 설립 준비를 위한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한국분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는 샌프란시스코 버클리대학에 있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로 에너지, 생명공학, 기초과학 분야에서 1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연구소이다. 연구원, 기술자, 학생, 직원 등 4천여 명이 재직 중이며, 세계 경제에 연간 14억 불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BKRI는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 바이오융합 및 약학, 기초과학 영역의 연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물을 국내 기업으로 기술이전하고 기업, 대학 등과 산학연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경제적, 학술적으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KRI 초대 소장에는 '우주 극초단파 배경 복사의 흑체 형태와 이방성에 대한 연구'로 2006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조지 스무트 박사가 취임하며,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연구원, UC 버클리대학 교수 등 많은 현지 과학자가 연구소 설립과 연구수행에 참여할 계획이다. BKRI 설립으로 에너지, 생명공학 분야의 주축으로 우뚝 설 인천대학교를 기대해 본다.

**국제 교류 확대로  
글로벌 명문으로 도약하다**

현재 인천대학교는 영국 플리머스대(해양과학 분야), 벨기에 겐트대(생명과학 분야), 러시



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자연과학 분야) 등과 분교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일본 홋카이도대, 태국 타마삿대, 미국 캔자스 주립대 등과 교류 협정을 맺는 등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해마다 약 150여 명의 학생을 해외로 파견하고 글로벌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래지도자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국제 교류 프로그램 및 지원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의 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외국인 학생들의 생활 편의 제공 및 국내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도우미(버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름방학 기간에는 외국 자매대학 유명교수들을 초빙, 영어 특강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명문을 향한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0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WORLD'S TOP 100 BY 2020)'이라는 인천대학교의 비전이 돋보이는 이유이다.



# 인천대학교의 역사와 비전이 한눈에

## 인천대학교 홍보관 개관



### 풍부한 볼거리로 아기자기한 재미 가득

인천대학교 본관 옆 2층 건물에 들어선 인천대학교 홍보관에는 인천대학교를 소개하는 다양한 홍보물이 전시되어 있어 인천대학교를 찾는 방문객에게 큰 재미를 주고 있다. 홍보관 1층에는 대학 캠퍼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전시물을 비롯하여 대학의 비전과 역사, 단과대학 및 대학기구, 산학협력, 글로벌 프로그램, 취업진로 프로그램 및 특성화 교육의 성과를 소개하는 각종 패널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제물포 캠퍼스부터 송도 캠퍼스 이전까지 인천대학교 혁신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홍보 동영상상시 상영하고 있다.

홍보관 2층에는 인천대학교의 32년 역사를 증명하는 각종 상패 및 기록물과 더불어 국제교류의 성과를 알리는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관람객의 흥미를 더해준다. 이번 홍보관 개관으로 인천대학교를 찾는 대내외 방문객에게 대학에 대해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에게는 인천대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대학교는 지난 8월 30일, 대학 설립부터 현재까지  
 인천대학교의 오랜 역사와 남다른 비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학 홍보관을 개관하였다.  
 다양한 전시물과 쾌적한 환경으로 대학을 방문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  
 그리고 내외 귀빈에게 인천대학교를 알릴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대학교의 얼굴, 대외협력과

이번 홍보관 개관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인천대학교 대외협력과. 대학 내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각종 언론보도 및 대내외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명실공히 인천대학교의 얼굴이다. 최재웅 과장을 비롯해 고덕봉 팀장, 최성찬, 최명중, 박혜정 팀원들은 대학 내 여러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보도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대학의 각종 행사를 기록·보전할 뿐 아니라 뉴스레터 및 소식지 발간을 통해 대내외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국제 교류 및 대외 협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대학을 체계적으로 알릴 필요성을 느껴 홍보관을 개관하게 되었다.”라는 최재웅 과장은 “이번 홍보관 개관으로 인천대학교의 글로벌 경쟁력을 세계 속에 알릴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내외 연계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여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인천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실공히 인천대학교의 심장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학산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고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온 학산도서관이 취업테마도서관(Job Library)과 기증 도서열람실을 잇달아 개소하고 더욱 풍부한 콘텐츠로 이용자를 맞이하고 있다.

# 정보의 나눔, 희망의 발견

인천대학교 학산도서관





### 성공취업의 길잡이 취업테마도서관 Job Library 오픈

날로 심화되는 청년실업을 대비하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하여 인천대학교 학산도서관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모은 취업관련 테마도서관 Job Library를 지난 3월 개소하였다. 학산도서관 2층에 마련된 104평 규모의 Job Library에는 취업관련 단행본 3,500여 권과 국내 150대 대기업 및 공기업의 사보 등이 비치되어 있어 기업의 사내활동과 경영정책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열람석을 비롯하여 전용 PC도 마련돼 실시간으로 기업정보를 검색하고 고용 동향도 확인할 수 있다. 학산도서관은 Job Library 코너가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는 한편, 체계화된 취업준비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ob Library는 상시 이용 가능하며, 특히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까지 자유롭게 취업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의 성공 취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 시민의 따뜻한 정성이 깃든 기증도서열람실 개소

인천대학교 학산도서관은 또한, 시민과 교직원, 퇴직 교수들이 기증한 책 4만여 권으로 채워진 기증도서열람실을 지난 7월 26일 개소하였다. 도서관 지하 1층에 문을 연 기증도서열람실에는 학생 및 전공자들에게 도움이 될 각종 전문서적과 연구보고서 등 기증도서 4만여 권이 비치되어 있다. 또 기증도서열람실 한쪽에는 이용자들이 책을 읽으며 각종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노트북 전용좌석(28석 규모)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서 1명을 전담 배치하여 다른 대학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 및 전자저널을 통한 문헌제공 등 학술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Interview 정상철 (경영학부 교수 / 학산도서관장)



### 기증도서열람실 개소를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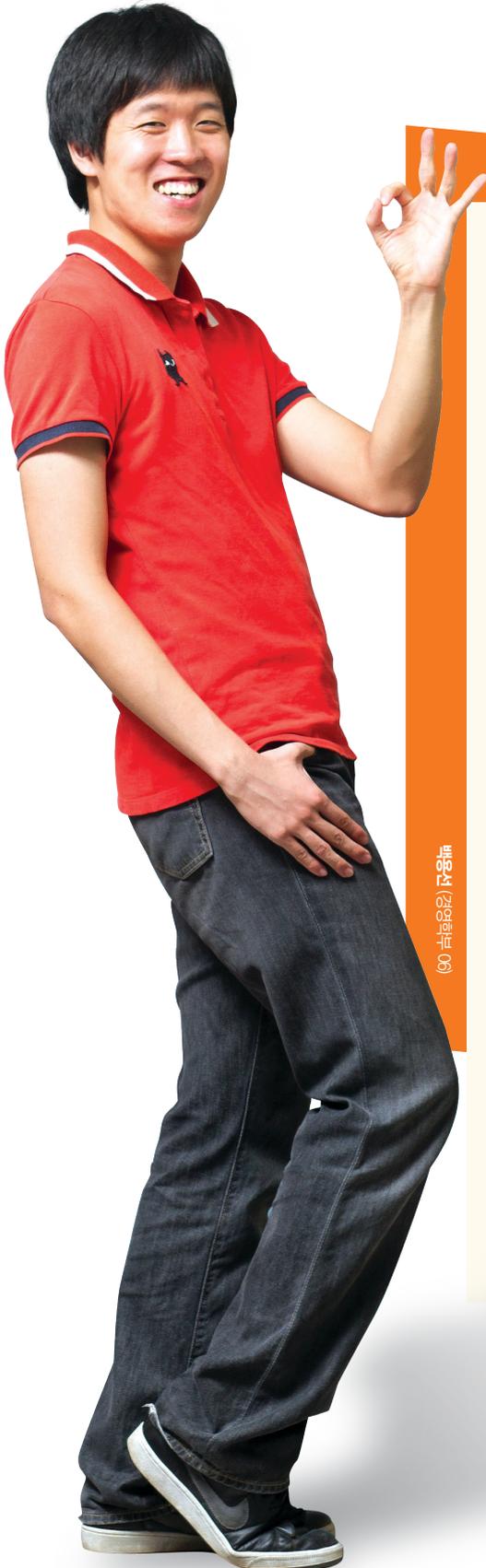
“인천대학교 퇴직 교수님을 중심으로 교수님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적으로 우수한 도서를 학교에 기증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교수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기증받은 도서가 어느새 4만여 권에 달해 기증도서 집중관리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증도서열람실에 비치된 도서 중에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전문서적과 연구논문이 많아 학생뿐 아니라 대학원생, 교수 등 전공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증도서열람실 개소에 남다른 열정을 보인 학산도서관장 정상철 교수. 이만여 권에 달하는 도서를 기증해주신 전광일 교수의 부친 전재덕 씨를 비롯하여 참여해준 교수님들과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그는, 도서기증운동이 학교사랑의 구체적 실천 운동이자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지식 나눔 운동임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서가에 있으면 한 사람의 지식이지만 도서관 서가에 있으면 만 명, 이만 명의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열람실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외부 수주 용역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도 비치한 자료실도 만들어 교수와 학생들의 새로운 프로젝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기능을 더욱 확충하려 합니다.”

지속적인 기증운동 전개를 통해 후학들의 연구 활동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정상철 교수. 학교와 지역을 사랑하는 나눔의 마음이 학산도서관 내에 희망의 울림으로 가득차고 있다.

2011 서울머니쇼  
'재테크 사례공모전' 금상 수상

# 헤지펀드 매니저를 꿈꾸다!



90 서울머니쇼 수상

젊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싱그럽다. 거기에 미래에 대한 꿈이 더해진다면,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성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 젊음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 부모님의 노후를 준비해온 '작은 거인', 25세 대학생의 이야기



입대를 앞두고 우연히 부모님의 통장 잔고를 보게 되면서 위기를 느껴 부모님의 자산관리에 나서게 되었다는 백용선(경영학부 06) 학생. 부모님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지난 3년 동안 부모님의 자산관리를 해왔으며, 처음 세웠던 목표도 실현하게 되었다고, 이를 계기로 '2011 서울머니쇼' 부대 행사로 진행된 '제2회 재테크 사례공모전'에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까지 안았다.

"부모님 은퇴시기가 7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여유자금이 전혀 없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도움이 되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군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재테크관련 서적을 읽고 관련 웹 사이트를 통해 지출절감 노하우, 투자 전략과 절세전략 등을 꼼꼼히 체크하였고, 제대 이후 본격적으로 부모님의 자산관리에 나섰다.

"부모님께서 은퇴 이후 월 1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3년간 부모님의 자산을 관리해오며 절세전략, 지출절감, 노후설계, 투자전략 등 종합적인 자산 관리능력을 키웠습니다. 목표수익률을 연 6%로 잡아 은퇴 이후(57세) 월 110만 원의 생활비를 80세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 현재 목표수익률을 크게 웃돌아서 목표초과 달성확률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논문공모전이나 수기공모전에 주로 참여한다는 백용선 학생은 2009 한국금융연구원 - 시티은행 금융논문공모전과 파이낸셜뉴스 Term-Paper 공모전,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 경시대회, 서울머니쇼 재테크 사례공모전 등에 참여해왔다. 또한 2010 한국은행 통화정책경시대회에서 지역 1위, 전국 2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서울머니쇼 재테크 사례공모전에서는 지난해 장려상에 이어 올해는 금상을 수상하는 등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연간 순수익 3~4조 원을 벌어들이는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처럼 멋진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다는 백용선 학생은 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일이 제일 즐겁다고, 하지만 대학생으로서 취업이나 학점, 토익 등 스펙 쌓기에만 몰두해 젊음을 낭비하지 말고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자신의 꿈을 향해 즐겁게 달려가겠다는 백용선 학생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





2011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선 최우수상 수상

# 최고를 향해 도전하는 젊은 경제학도들!

왼쪽부터 경제학과 4인방 정현아(09), 박현욱(05), 구자경(08), 이진규(06)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통찰력과 혼자만의 독단과 독선에서 벗어나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아량,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과 열정이 빛어낸 '최우수상'의 영예. 2011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더욱 단단해진 경제학과 4인방의 어울림 속으로...

## 경시서(京市署),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도 교수님을 통해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서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마음이 생겨 곧바로 팀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경제학과 4인방 박현욱(05), 이진규(06), 구자경(08), 정현아(09) 학우.

"팀명 경시서(京市署)는 고려·조선시대 때 시전(市廛)을 관리·감독하거나 국역(國役)의 부과 등을 맡아본 관청입니다. 즉 현재의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물가안정을 책임지던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경시서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바람과 더불어 경시서의 역할이 현재의 한국은행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여 팀명을 경시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한국경제의 물가 방향을 예측하여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한국은행 통화정책 수립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향후 5년 동안 한국은행 신입행원 채용에 우대하고 기타 메이저 금융권으로 취업 시 플러스가 되기에 취업 준비에 한창인 3, 4학년 학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경시대회를 준비하면서 팀원들끼리 의견 충돌로 많이 다투기도 있었

어요. 지표나 숫자 하나를 보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그에 따르는 의견들도 다양해서 서로 조율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지요. 하지만 결과를 떠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을 맡아 교수님과 팀원들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면서 사회생활의 산 경험을 한 것 같다는 박현욱 학생은 최우수상 수상과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았다는 것보다 팀을 이루어 함께 목표에 도전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지역대회(경기·인천·강원)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전국 결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학기간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하고 매일 학교에 나와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경시서 팀.

"이런 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때론 질타를 아끼지 않으셨던 함정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대회 경험담 등 실질적인 정보로 도움을 주셨던 선배님들과 UI 금융스터디 팀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국 결선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적극성과 자신감으로 도전해 최우수상이라는 결실을 얻어낸 4명의 경제학도, 현재에 멈추지 않고 다시 더 큰 무대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미래의 경제 주역들의 모습에서 다가올 내일의 희망을 엿본다.



## 저명 학술지 표지논문 연속 선정

# 물리학 연구, 풍성한 열매 맺다!

세상에 유일한 존재의 가치. 스스로 한 이미지에 고정하고 마는 우격다짐 식의 연구가 아닌 자신의 존재, 그 유일함 자체를 연구의 시작이라 생각하며, 중학교 때부터 '물리'의 매력에 빠져든 김정용 교수.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깊이 빠져들 수 있다면,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김 교수의 물리인생 엿보기.



### 나노광학 연구실의 큰 빛

한두 명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평범한 소규모 연구그룹. 하지만 연구 성과나 결과물은 규모와는 상관이 없다. 구성원 각자 맡은 분야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따라 그 성과는 달라지기 마련이니까. 올해 6월, 7월 두 편의 논문을 응용화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 표지논문으로 연속 장식함으로써 연구의 꽃을 제대로 피워낸 김정용 교수는 함께 연구해온 팀원들에게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현재 저희 연구실에는 네팔에서 온 박사과정 Krishna Dhakal과 4학년 이현수, 3학년 김지현과 홍기원 학생 등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 『Synthetic Metals』에 게재된 논문은 작년 상반기에 우리 실험실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있었던 박성규 박사(현재 LG 이노텍 근무)가 주 실험자였으며, Krishna와 이현수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논문입니다.”

좋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교수의 연구역량과 인력, 연구비, 시설, 대학의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수의 연구역량이라며 자신의 역량의 부족함이 연구 과정에서 가장 큰 역경이었다고 낮추어 말하는 김 교수의 겸손함에서 묵묵히 이어온 오랜 연구 활동의 면모가 엿보인다.

“저희 그룹이 소규모인데다 연구 인력이 부족하고 또 자주 바뀌어 연구하는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같은 실험을 하어도 실험자의 사소한 차이가 우수한

논문의 데이터가 되기도 하고 또 쓸모없는 결과가 되기도 하기에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가 양질의 실험데이터 획득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지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는 온갖 어려움이 동반되기 마련인 듯.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그 열매의 달콤함은 더욱 진해지는 것임을 김 교수는 물론 함께 연구 활동을 펼쳐온 팀원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그렇기에, 저명 학술지의 표지논문 선정처럼 연구 역량을 인정받을 때마다 그간의 어려움을 잊을 수 있다.

### 물리학으로 세계와 소통하다

중학교 시절, 많은 것을 외우지 않아도 원리만 잘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리는 게 신기해 무작정 물리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김정용 교수. 작은 관심에서 시작해 평생을 물리학과 함께 해오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순간순간 놀라기도 한다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물리가 마냥 재미있었어요. 현대 대학에 들어가니 물리 과목에 수학이 많이 필요하더군요. 갑자기 어려워진 학과목 때문에 전공 선택을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좀 더 폭넓은 물리의 세계에 빠져 보고 싶은 욕구로 미국 유학을 선택한 김 교수는 물리학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학생들의 고민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돌이켜 보곤 한다. 다른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본 적이 없기에

김정용 (물리학과 교수)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며 걸어왔다고, 한 우물만 고집하며, 힘겨운 난간에 부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던 끈기와 집념이 지금의 그를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Synthetic Metals』 6월호에 태양전지나 트랜지스터 등의 광전소자에 많이 쓰이고 있는 폴리부틸사이오펜을 최초로 전기방사법을 이용, 나노섬유로 대량 제작하는 데 성공한 연구 결과가 전면 표지논문으로 보고됐다. 폴리부틸사이오펜의 광학적 특성은 유지하면서 전기방사 나노섬유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조건을 오랜 연구를 통해 얻어낸 것이다. 또 『Chemical Communications』 7월호에는 단일 고분자 나노선에 의한 DNA 검지에 성공한 연구 결과가 후면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김 교수를 포함, 고려대 물리학과 주진수 교수, 화공과 안동준 교수 등 3개 연구그룹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뤄졌으며, 기존의 DNA 형광 검지와 달리 외부 형광인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높은 감도로 DNA 혼성화 검지에 성공한 것이 높이 평가받았다. 유기 나노물질의 광학적인 특성을 나노스케일에서 영상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김 교수 연구팀은 이 외에도 최상급의 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꾸준한 연구 활동으로 국내 나노분광이미징 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활동 업적을 바탕으로 김 교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ISO TC201 기술 분과 나노광학기술 소분과 위원장으로서 매년 열리는 ISO TC201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Advanced Materials,

ACS Nano를 포함하여 최근 4년간 SCI 논문 30여 편과 ISO 국제규격 1건을 출간하는 등 국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산은 오른 만큼 볼 수 있다!

“물리학은 모두 어려운 전공이라고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동정과 경의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물리 전공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전공을 성실하게 마친 물리학과 졸업생은 사회에 진출하여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체득한 창의력과 적용 능력, 문제 해결력 등은 학생들에게 강력한 자선이 될 것이라 말하는 김정용 교수.

“말은 분야에 정진하고 노력할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는 법입니다. 우리 사회 환경, 특히 취업 상황이 젊은이들에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 기성사회 구성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기회를 찾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찾아 나서는 자에게 길이 열릴 테니까요.”

기회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전공분야에 더욱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며, 언젠가 되더라도 그 노력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니 젊음을 무기 삼아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길 바란다는 김정용 교수는 물리학과 선배로서 물리학과 인연을 맺은 후배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 Mini - Miracle, 작은 실천이 만드는 행복한 미래

세상을 바꾸는 것은 위대한 생각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다. 원대한 꿈을 꾸기보다는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의 부패를 비판하기보다는  
불합리한 제도를 조금씩 바꿔나가며  
더 밝은 미래,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는 사람.  
경림건설(주) 대표이자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황규철 동문은  
2011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책임경영과 상생경영,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변화와 개혁보다는 작은 실천을 통해  
사회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소박하지만 은은한 빛을 뿜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황규철 (기계과 71 / 경림건설(주) 대표 /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

## 2011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건설협회는 지역건설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에 협회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우리 건설인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투명사회협약 및 사회적기업 사회공헌협약 등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도모하여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시민음악회가 그 첫 번째 대안이었지요.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사업 및 나눔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은탑산업훈장은 저 개인에게 주는 상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건설산업과 건설인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했던 우리 협회 회원 모두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천시민음악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협회에서 진행하는 문화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협회에서는 매년 '인천건설협회와 함께하는 인천시민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박상민, 양희은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한 가운데 1,500여 석에 달하는 공연장이 꽉 찰 정도로 시민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올해에는 오는 9월 국악관현악단의 무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는 인천지역 저소득 난임 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돕는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돕고자 인천시한의사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세에서 40세 사이의 불임 여성을 한방의학을 통해 치료하는데 성공률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까지 다섯 부부가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외에도 독거노인들을 위한 합독(合獨)사업, 섬지역 아이들을 위한 '도서학생초청 문화체험학습' 행사,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천안함 침몰사고 위문물품 전달, 재래시장상품권 기탁, 암 투병 경찰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및 후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회뿐 아니라 주요 회원사들도 개별적으로 지역 내 모금활동이나 지원활동에 동참하면서 이제는 건설산업과 건설인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음을 실감합니다.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이 펼치는 좋은 취지의 사업에 더 많은 회원사가 참여하여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 건설사업과 건설인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건설업에 입문한 계기는 무엇인가.

건설업을 시작한 지 30여 년이 되어 갑니다. 건설은 모든 산업의 기본이기에 그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80년대 초 건설업에 입문하였습니다. 이후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4년 경림건설을 설립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을 기업이념으로 삼아 건설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주로 철도 및 도로 사업, 항만사업 등 국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인천공항기반 조성공사, 경인 아라벳길 사업, 연세대 송도캠퍼스 신축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사를 진행하며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항상 기본을 지키자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성실히 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어음이 아닌 현금 거래를 통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송사에 휘말리기 쉬우면서도 여태껏 큰 문제 없이 건설회사를 경영해 왔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 취업을 앞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년 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취업 경쟁에 놓여 있는 후배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사회가 많이 변하여 후배들이 처한 상황이 제가 경험해왔던 것과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건설업체의 경우 대기업과는 급료나 처우 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때론 작은 회사가 자신의 성장 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후배 여러분이 강한 의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7년 미술계에 등단한 이래, 민중미술작품과 90년대의 생명 연작, 그리고 최근의 장서표에 이르기까지 미술을 대중들의 삶과 밀착시키고자 한결같이 노력해온 판화가 남궁산 동문. 인간의 건강한 정서에 뿌리를 둔 따뜻하고 정겨운 시각으로 인간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그리고 우리 시대 서민의 자화상을 새기고 있는 그를 만났다.

## 미술과 대중의 거리 좁히기

민주화운동이 거셌던 1980년대 대학에 입학한 남궁산 동문. 미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미술의 대중성에 대해 고민하던 그에게, 미술 본연의 물성으로 인해 자본의 투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미술은 큰 한계로 다가왔다. 작품의 유일무이성이라는 미술의 한계에 서 벗어나 여러 사람이 감상하고 소통하는 미술을 원했던 그는 판화라는 장르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 전통적으로 판화예술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복제성은 예술의 대중화를 바라는 그에게 오히려 크나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80년대 말 전교조 사업단에서 일할 당시 대중과의 소통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미술이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이후 목판화야말로 소통구조의 민주화와 우리 전통을 현대화하는데 가장 적합한 매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달력, 엽서, 책 표지, 잡지 등 출판매체에서 활용될 뿐 아니라 티셔츠 등 옷에도 찍을 수 있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밀착되어 있으니까요.”

90년대 들어 반공해, 반핵 등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그의 작품은 조금씩 변화하며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생명 연작에서 보이듯이 '반(anti)'보다는 '친' 환경, '친' 생명 등 긍정적인 시각에서 인간의 삶을 내면화하는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거칠고 전투적인 목판화가 대세였던 80년대 미술계에서 '부드럽고 친근한' 작품을 고집했던 몇 안 되는 작가였던 그이기에 이러한 변화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인간의 건강한 정서에 뿌리를 둔 밝은 서정 또는 명량성'이라고 평한 유흥준 교수나 '동화적 천진성에 깊숙이 뿌리를 대고 있다'는 안도현 시인의 말처럼 남궁산 화백의 작품에는 삶의 근원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따뜻한 시각과 생명의 소리, 그리고 과거를 추억하게 하는 아련한 향수가 담겨 있다.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천진난만함과 단순성, 삶의 희망이야말로 대중의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만의 힘일 것이다.



## 조각칼로 새기는 희망의 초상

# 판화가 남궁산 동문을 만나다

남궁산 (미술학과 83 / 판화가)





이준호 - 이랜드아트어반



### 장서표, 애서가의 초상을 새기다

책 표지, 달력, 엽서 등 다양한 출판활동을 통해 판화의 대중화에 힘쓴 남궁산 화백은 1991년 조선족 판화가 이수산 씨를 통해 장서표를 처음 접하게 되고, 작은 판화에 담긴 문학적 향취와 상징성에 매료되어 장서표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

“이년 처음 조선족 판화 작가의 장서표를 접하는 순간 판화의 새로운 쓰임새를 발견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장서표야말로 더욱 대중과 가까워질 수 있는 미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아끼는 책에 붙일 수 있는 판화가 바로 장서표인 것이죠.”

장서표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소중한 책에 붙여 책의 소유자를 알리는 일종의 작은 판화로, 문자로만 이루어진 장서인을 좀 더 예술적으로 가공한 독립된 판화 장르이다. 서양에서는 15세기 후반 귀족과 승려계급에서 애호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에서는 장서표 대신 서책에 직접 도장을 찍는 장서인을 사용하였다. 실용성과 더불어 고유의 아름다움으로 책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애서가들의 관심을 끌어난 장서표에는 장서기(표주)의 이름과 함께 ‘~의 장서’라는 의미의 ‘EX-LIBRIS’라는 국제 공용의 표식이 삽입된다.

국내 최초로 1993년 ‘세계의 장서표’전을 연 것을 시작으로 장서표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 앞장서온 남궁산 화백은 공지영, 신경림, 안도현, 유홍준, 이윤기, 윤대녕, 은희경, 정호승, 한비아 등 국내 문화예술인들의 장서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장서표를 제작, 전시하고 있다. 표주의 직업, 취미, 세계관 등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남궁산의 장서표는 그의 예술적 감각과 표주의 개성이 어우러져 한 자락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지난 6월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던 전시회에서 하남시민의 장서표를 미리 의뢰 받아 제작, 전시하였습니다. 장서표는 저에게 있어 대중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매개물입니다.”

판화라는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려 노력했던 초기의 작품부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초상을 그려내는 장서표에 이르기까지,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귀결되는 남궁산 화백의 작품에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감성을 바탕으로 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그의 한결같은 삶이 담겨 있었다.



국제통상학의 선두주자,  
 동북아 시대를  
 이끌 주역!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최고의 국제통상 엘리트 양성소**

동북아국제통상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교육부로부터 국제전문인력양성 분야 특성화사업 최우수대학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국제통상학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다져오고 있다.

현재 4개국 10개 대학과 학생 및 학술교류에 관한 세부 협정을 체결,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행정고시, 외국고시 등을 비롯한 정부기관이나 기업을 위시하여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 명문대학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새로운 명문대학으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장학금 최고, 시설 최고, 취업률 최고**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입학생은 모두 장학생이다. 매 학기 3.5 이상의 학점을 받으면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재학 중 학기 수석을 차지하면 추가 장학금이 지원돼 생활비까지 해결할 수 있으니 노력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특별장학금, 유학지원

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지원으로 동북아 국제통상학부와 학생들을 동시에 살찌우는 든든한 양분이 되고 있다. 또 재학생 전원에게 1년간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공식 학점으로 인정, 중국·미국·일본·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대학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학수업 중 80% 이상이 해당 전공 원어민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는데, 각 나라의 통상전문가를 양성하는 학부인 만큼 해당 나라의 언어교육도 철저하다. 최고의 기숙사 시설도 동북아국제통상학부의 자랑거리 중 하나로 손꼽히며, 다양한 진로선택과 90%가 넘는 취업률은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되고 있다.



인천대학교의 가장 오래된 특성화 분야로 인천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동북아국제통상학부.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재학생 전원 해외유학, 든든한 기숙사 생활과 90% 넘는 취업률을 자랑하는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최소 2개 이상의 외국어 능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졸업생을 배출하며 막강한 학과 브랜드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

### 세계로 미래로, 글로벌스탠더드 실현

국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평가 전국 1위, 대학평가 해외파견 교환학생 부문 전국 1위에 선정된 바 있는 인천대학교의 높은 위상에 따라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재학생 외국어 구사능력의 향상, 전공지식의 함양 및 타문화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4개국 10개 대학과 학생 및 학술교류를 펼치고 있다. 1년간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유학생을 수용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 해외인맥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도서자료 교환, 인적교류,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스탠더드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특화된 전공, 특화된 글로벌 감각

‘국제통상학’은 국가나 기업 간의 협약, 교류, 투자 등을 위한 전략수립과 교섭, 체결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통상학에 국제화 교육을 가미한 학문이다. 여기에 ‘동북아’라는 지역색을 가미해 차별화를 두었다.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중국통상, 일본통상, 러시아통상, 미국통상 등 총 4개의 전공으로 구성, 해외 현지교육을 통한 2개의 외국어, 국제 및 지역경제 등에 중점을 두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통상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외국어 조기 숙달을 위해 방학기간에 각 전공에 맞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현장경험 및 교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인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설치전공  
중국통상전공, 일본통상전공, 러시아통상전공, 미국통상전공



### 동북아 경제의 성장엔진, 중국을 배우다 중국통상전공

초고속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에 있어 통상·투자 면에서 가장 비중 있고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통상전공은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 화교 사회와의 교류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수준 높은 중국어 구사 능력과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사상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갖춘 대중국 통상 교섭 및 실무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중국통상전공은 1년간 북경 대외경제 무역대학, 상해 복단대학 등으로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 중소기업인을 배려한 맞춤형 수업

MBA과정 & CEO과정



항만, 공항, 철도 시설이 집중돼  
물류가 모이는 지역, 인천의  
지정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유능한  
경영인을 배출하고,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영대학원 zoom in.

김준우 (경영대학장 / 경영대학원장)

강진영 (경영대학원 원우회 회장)

### MBA과정, 수요자 배려한 야간 특수과정만 개설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MBA과정은 인천의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하여 유능한 경영인 배출을 목표로, 수강생들이 경영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 관련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고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와 남동공단 등에 있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가 수강생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배려한 야간 특수과정만 개설, 운영하고 있다.

경영학 전공과 부동산 전공으로 이루어진 MBA과정은 마케팅, MIS, 재무회계, 생산계량정보, 인사조직, 국제경영 등 다방면의 전임교수 18명으로 구성됐다. 경영학 전공은 회계, 인사조직, 생산마케팅 등 세부 분야를 심도 있게 파고들어 통합적 시각에서 경영관리 전반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전공은 부동산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 및 부동산 경영관리인재 양성을 목표로,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과정은 물론 부동산개발과 정책, 부동산법을 등 이론과 실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강의한다.

###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인천 지역 CEO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경영대학원 CEO과정은 국제적 경영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경영자 양성, CEO의 경영능력 개발, CEO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경영 강좌에서는 경영자의 경영능력 배양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지역개발 강좌에서는 인천 지역 투자환경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한다. 또 교양강좌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CEO로서 갖춰야 할 교양 및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배운다. 이밖에 선후배와의 만남, 스포츠댄스, 국내외 워크숍, 무용강좌, 오페라 강좌, 와인특강, 골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강생의 99%가 기업 CEO로 구성된 CEO과정은



기업네트워크 형성 및 성공비즈니스 모델을 학습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이 대부분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수별 동문회 및 총동문회 활동도 활발하다.

### 경영혁신원, 지역사회 발전에 한몫

경영대학원 산하에 설립된 경영혁신원은 기업체 및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관련 주제들을 연구하는 곳이다. 서비스업 및 제조업을 포함한 사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의 각종 행정 단위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제반 이론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전파하여 산학협동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경영혁신원은 지역 CEO가 각자 필요에 따라 인천대학교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CEO와 인천대 간 연결 및 조정자 역할도 수행한다. 또 인천 지역 경영자들의 글로벌화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설립된 글로벌경영포럼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글로벌경영포럼, 인적 교류의 장

지난해 12월에 창립된 글로벌경영포럼은 글로벌경영 환경에 대처하는 유연한 경영전략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한 경영자 및 학자 등의 인적교류의 장으로서 국내외 우수한 인력들의 경험과 식견을 공유, 교류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제1회 글로벌경영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4월과 6월에 각각 제2회와 제3회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의 진행은 강연자의 강연, 대학원장과의 대담, 청중과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연장 밖에서는 와인파티를 운영, 강연자와 청중 간 대화의 시간을 갖고 CEO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경영포럼 회원은 인천대 경영대학원 동문과 인천 지역 경영인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차 서울 강남 지역과 아시아 지역 경영인들로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 Interview

강진영 (경영대학원 MBA과정 / (주)이씨온즈 대표)



### 무역 IT 토털허브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1년 MBA과정 경영학 전공으로 입학하여 현재 경영대학원 원우회 회장직과 글로벌경영포럼 사무국 IT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이씨온즈 강진영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주)이씨온즈를 15년 이상 경영하며, 국내외 2,000여 무역기업에 무역 ERP 소프트웨어 '오피매니저'를 개발·공급하고 있다.

"저는 전문적인 경영지식이 전혀 없이 20대 초반에 창업하여 현재까지 기업을 경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제 경영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은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가치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인천대 경영대학원으로 이끈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한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 그 안에서 제품의 경쟁력은 물론 고객들의 신뢰와 믿음이 쌓여가는 것 같다는 강진영 대표는 대학원에 와서 얻은 것 중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수업내용과 더불어 다양한 '인맥'을 으뜸으로 꼽는다.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에너지는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을 가져다주기에.

"MBA과정 이후 박사과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무역실무 교육과목을 강의해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희가 개발, 공급하고 있는 무역 소프트웨어는 현장 실무형 소프트웨어이기에 학생들이 실제적인 무역실무를 배우고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진영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사회적 나눔 기업의 일환으로 글로벌경영포럼 모임과 연계하여 인천 시내에 무역관련 기업들이 쉽고 편리하게 무역실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무역 IT 토털허브서비스'가 제공 되는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함께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모바일 랩(Lab) 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모바일 랩 서비스 지원시스템은 기업들의 생산 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발 빠른 산학협력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 움직이는 모바일 실험실, 기업 생산 활동에 기여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hunic)은 중소기업을 위해 소음은 물론 환경, 열, 온도 측정 등 각종 테스트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랩(Lab) 서비스 지원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기업들은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테스트를 받기 위해 시험소를 별도로 방문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모바일을 활용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서 신청하면 이동식 차량이 바로 출동, 기업이 원하는 각종 테스트를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테스트 전체 비용 가운데 8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업은 일반적인 시험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므로 앞으로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의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 모바일 e-Learning 교육과 장비검색 기능을 가진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며, 인천지역 클러스터 회원사 및 산학협력 가족회사 등 1,500여 개의 인천지역 기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구축된 모바일 홈페이지는 IT융복합교육, 미래형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이 포함된 'IT 융복합 미래기술교육(m.edu.itic.re.kr)'과 KOLAS 인증시험, 자동차부품 신뢰성시험, 일반시험 등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 지원 공용장비 검색시스템(m.itic.re.kr)'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방법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이 기업체에 부착해 놓은 스티커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후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천대학교가 보유한 장비를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비 이용 신청이 들어오면 이동식 시험 차량을 해당 기업에 보내게 된다. 이동식 차량에는 소음시험, 환경시험, 열 및 온도측정 성능시험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최첨단 장비가 마련되어 있다. 이번 모바일 교육지원시스템과 모바일 랩 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은 지금까지의 산학협력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모바일 산학협력의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보다 발 빠른 산학협력이 가능해져 기업 자원에 스피드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 모바일 랩 서비스 지원시스템 개발

# 장비 신청 모바일로 간편하게!

IT 융복합 미래기술교육



중소기업 지원 공용장비 검색시스템





## Interview

장병건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 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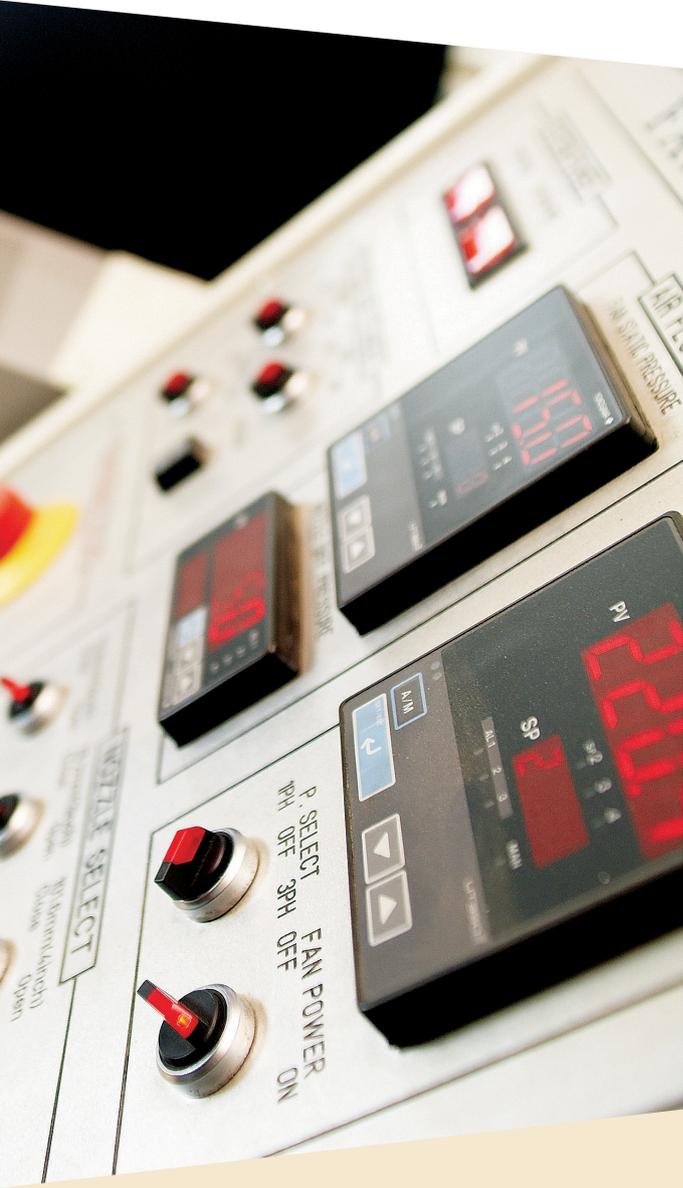


### 현장 밀착형,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인천 지역 산학협력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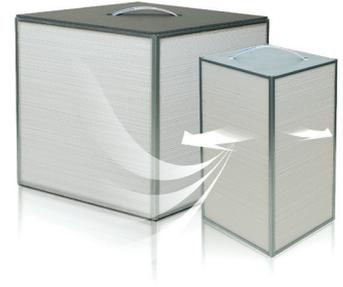
국내 최초로 '모바일 랩(Lab)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기업체가 원하는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에서는 지난 수년간 인천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활동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역 기업과 밀착된 연계 활동을 위해 산학협력 가족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가족회사 멘토제 실시, 공용 장비 지원시스템 구축, 현장애로기술 및 공유기반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이용 방법을 몰라 여러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기업 전체의 업무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업단에서는 지역 기업체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다가 작년 11월부터 '업체성장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를 방문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각종 시험이나 장비 사용을 현장에서 시연할 뿐 아니라 기업의 애로기술을 직접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실시한 지 채 1년이 안 되었지만, 업체성장 밀착형 교육으로 지역 기업체의 업무 능력이 배가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업단에서는 인천대학교가 보유한 각종 공용장비를 지역 기업체가 보다 쉽게 이용하는 방안으로 오랜 준비 끝에 이번 '모바일 랩(Lab)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랩 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어 규모가 작은 지역 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단에서는 송도테크노파크, 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인천지역 'IT융복합·신재생에너지 트리아앵글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가진 기술력과 시험 장비를 활용하여 남동공단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남동공단의 제조기반을 IT와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재무장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실험 장비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체가 원하는 현장 밀착형,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천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천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제2호 자회사인 클린에어나노테크.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던 환기장치의 핵심 부품인 전열교환소자 생산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이래 작년 한 해 매출액이 20여억 원에 이르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에너지 재생 분야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 클린에어나노테크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재생의 블루칩

### 앞선 기술력으로 시장을 개척하다

2004년 학교기업으로 출범하여 지난해 인천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법인 전환한 클린에어나노테크는 막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열교환소자 시장의 선두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클린에어나노테크에서 생산하는 전열교환소자는 열 회수형 환기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아파트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실내 공기와 외부 공기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바꿔주면서 손실되는 열과 습도 등을 80% 회수해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기능을 한다. 현재 전열교환소자는 국내 3~4개 기업이 만들고 있지만, 교환소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열 교환지(交換紙)는 클린에어나노테크가 유일하게 국산화 생산하고 있다.

“열 교환지는 일반 종이보다 5배나 얇고 밀도는 4~5배 가량 높으며 특수한 가공처리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였는데, 우리는 2004년도부터 (주)국일제지와 공동연구 개발에 나서 2006년, 일본 제품에 비해 열 회수율과 에너지 절감 효과는 훨씬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30% 이상 저렴한 전열교환용지를 개발, 일본 제품을 대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클린에어나노테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내현 교수(인천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는 강의와 경영을 병행해야 해 다소 힘들지만,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한다.

### 산학협력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다

현재 고유가와 정부의 에너지 절약기기 의무화 시책으로 열 회수형 환기장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클린에어나노테크는 매년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열교환기를 국산화했던 2006년에는 매출이 4,500만 원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4억 8,000만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2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귀뚜라미, 경동 등 국내 보일러 회사, 그리고 기타 공기조화 및 환기전문 회사와 거래하며 냉난방시스템 설계자문 등 환기장치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있다.

“종이로 만든 열 교환지 외에 플라스틱을 이용한 제품, 고분자 종이를 사용한 제품 등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에너지 재생 전문 기업으로서 웰빙화 추세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계속해나갈 방침입니다.”

클린에어나노테크의 가장 큰 장점은 인천대학교가 보유한 지식재산과 오랜 경험, 그리고 방대한 연구 설비라며 우수한 기술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연구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김내현 교수. 대학이 가진 인프라가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응용될 수 있는지 클린에어나노테크는 우리 사회에서 산학협력이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 노벨과학상의 꿈을 현실로...

### 과학 꿈나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올해로 설립 13년째를 맞는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지역 내 우수한 과학영재를 발굴하여 인재들의 특성과 소질에 맞게 교육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설립되었다. 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정보통신공학 등 인천대학교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대학의 연구, 실험 장비를 활용해 분야별 실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재교육체제 개편에 따라 현재 중등 심화 과정과 중등 사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70여 명의 과학영재가 미래의 노벨과학 상을 향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미 항공 우주국 NASA 및 IVY 대학을 탐방하는 해외연수프로그램과 자연생태체험학습, 독서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무학년 수준별 교육 과정의 단계적 도입, 3명 이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사사 과정 확대, 자기 주도적인 연구형 학습 강화 등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국내 영재교육의 모범이 되고 있다.

###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창조적 과학인재 육성

과학영재교육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지난 7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지역 과학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협력 협약식'을 갖고 인천지역 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지역의 과학인재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시와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교육에 관한 교육 방향을 공동연구하고 과학교육에 관한 자료를 공동 개발할 뿐 아니라 과학교육의 내실화 및 수혜자 확대를 위해 상호 행정, 시설, 인력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특히, 학생 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과학중점고등학교를 운영 중인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과학중점학교 운영 내실화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 기부라는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며 우수한 과학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과학영재교육원의 꿈나무들이 세계적 과학자로 성장할 그날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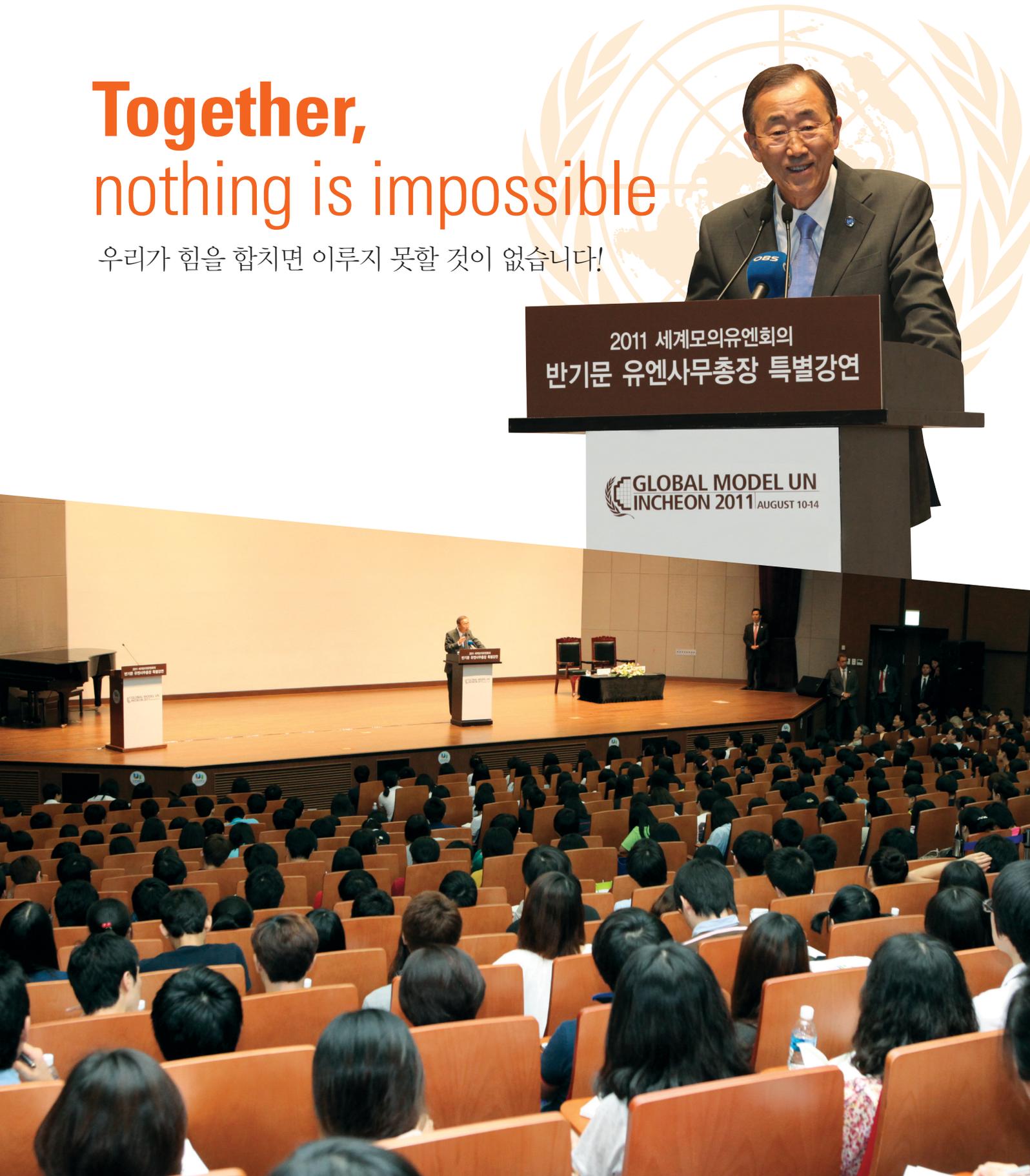
1998년 설립 이래 전국 최고의 과학영재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우수한 강사진과 최첨단 기자재를 이용한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과학영재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은 과학영재원이 지난 7월 인천시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과학인재 발굴에 발 벗고 나섰다.



전 세계 대학생들이 다양한 국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2011 세계모의유엔회의(Global Model UN Conference)'가 지난 8월 11일~1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다. 인천시와 유엔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대학생 600여 명과 인천지역 고교생 참관단 400명, 내외신 기자단 100명 등이 참가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분쟁·빈곤·인권·환경 등 다양한 국제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참석해 개막식 기조연설에 이어 인천대학교 강당에서 인천지역 중고생 및 대학생 1천 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하였다. '세계 속의 한국을 향한 관문, 인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특별강연을 요약, 소개한다.

# Together, nothing is impossible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 세계를 향해 열린 관문, 인천

인천은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고장입니다. 찬란한 중세 문화를 꽃피운 백제의 수도 미추홀의 자리가 이곳이고, 1883년 대한제국의 문이 세계를 향해 열린 곳도 이곳 인천입니다. 지금 인천은 동북아 교통의 중심지로서 세계를 향한, 세계 속의 한국을 향한 관문입니다. 2014년에 개최될 인천아시안게임은 인천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더 넓은 세계로 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대한민국, 희망의 등대가 되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지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있었던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유엔의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과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개도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사무총장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의 위상이 커진 것을 실감합니다. 글로벌 코리아,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커다란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국 선정,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를 보여 저는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나 지금 향유하고 있는 부와 편의,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우리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의 모습을 더 가꿔나가고 발전시켜나갈 책임은 이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 상호공존의 시대에 나눔의 정신을 가져야

지금 국제사회는 다중적 위기(multiple crisis)에 처해 있습니다. 식량 위기, 에너지 부족, 물 부족 사태, 질병, 여성 지위 향상 등 이 모든 것들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든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과제들은 이제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세계는 통합(integration)과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 필요합니다. 앞서 문제들은 어느 한 나라나 몇몇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체, 시민사회, 개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남을 돕는 '나눔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고, 여러분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유엔은 현재 새천년개발계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을 세우고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개선, 환경보호 등 8가지 목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매일 74개국 1억 8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3천4백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전 세계 어린이의 40%에게 백신을 제공하고, 매일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 세상을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의 여러분이 좀 더 넓은 마음,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기를 희망합니다.

### 창의력, 열정, 그리고 비판적 시각을 가져라

고등학교 3학년 때 적십자 대표로 미국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뒤 저는 제가 한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였고, 남북한이 분단된 안보 환경 속에서 외교관이 되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inspiration)이 되길 바라며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창의력(creativity)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존의 생각과 기존 행태를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젊은이들만이 가능합니다. 지금 변하는 시대에 맞게 생각의 발상을 바꾸고,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식의 벽을 뛰어넘어 상상의 나라를 퍼기 바랍니다. 둘째 비전과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꿈을 가져도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열정(passion)과 타인을 생각하는 연민(compassion), 이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호 의존의 세계에서 열정과 연민을 가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비판적 사고(critical mind)를 해야 합니다.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시정해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 Together, nothing is impossible

지난 6월 21일 유엔사무총장 연임이 결정된 후 유엔 총회 수락연설의 주제는 'Together, nothing is impossible'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막 꿈을 키워내는, 아주 좋은 시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누구나 평화로움 속에서 인격이 존엄 받는, 공존공영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美 캔자스대  
자매교류협정 체결**



인천대학교가 지난 6월 8일 미국 중서부 명문 캔자스대학(University of Kansas)과 자매교류협정을 맺었다. 인천대학교는 이번 자매교류협정 체결로 전 세계 23개국, 140개 대학교와 자매교류협정을 맺는 쾌거를 이룩했다.

인천대와 캔자스대는 이날 자매교류 협정을 통해 상호 교류확대를 약속하고 교원 및 연구자 교류, 학술자료 교환, 공동연구 및 심포지엄의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학생교류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866년 설립된 캔자스 대학은 미국 중서부 캔자스주 로렌스에 있는 주립대학으로, 학생 수 27,000명의 명문대학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인천대,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남구, 연수구 등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정에 전달**



인천대학교는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구청과 남구청에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인천대학교와 농협중앙회 인천대학교출장소 후원으로 관내 무의탁·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행사로써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이 대표로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공준환 남구 부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인천대학교는 지난해부터 급식 지원, 나들이 봉사, 복지시설 청소, 어르신 케어, 일일교사, 주거 환경 조사, 행사활동 보조 등 부서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안경수 총장은 "이번 '사랑의 쌀'이 무의탁·독거노인분들과 소년·소녀 가정들에게 희망의 씨앗으로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구청과 대학이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인천대,  
국립대법인 전환 8월 재추진키로**

인천대학교가 6월 국회에서 무산된 국립대법인 전환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3일 인천시와 인천대에 따르면 지역 내 국립대 설립을 18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인천대 국립대법인화 법안 통과를 재추진키로 했다.

인천대학교 국립대법인화 법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야 간사가 6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하고 공청회까지 개최되면서 수정법안 형태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소관 상임위가 최종적으로 인천대 국립대법인화 전환 법안을 다루지 않으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인천대학교는 "국립대법인 전환이 무산됐지만 우선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재추진하는 등 이번 18대 국회에서 국립대법인 전환이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 교육 통해 성공창업을"  
인천대 창업지원단 '아카데미' 운영**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8월 8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올해 기술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단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교육과 사업모델개발, 실전창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기술혁신기업의 창

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기술창업 실무 필수 및 특성화(20시간), 기술사업 모델 개발 필수 및 특성화(20시간), 기술 실전 창업 특성화와 필수 과정(각 20시간), 창업특강(10시간), 통합워크숍(10시간)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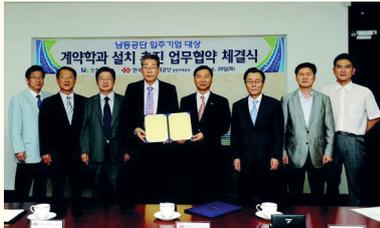
창업지원단은 전문 자격증 소지자, 석사 이상자 등 내·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해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단계별 교육이 끝난 후 간담회를 열어 수료생의 어려운 점을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 수강생을 뽑아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회를 주는 한편 책임 멘토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안-부평단지 클러스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와 공동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한·일 양국 간의 우호적인 발전은 물론 무역, 마케팅 및 개방형 기술 혁신 등 다방면의 교류 증진을 위해 '주안부평단지 입주 중소기업 해외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한·일 기업 간의 기술협력 및 공동생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력수급 및 부품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9개의 일본 기업과 해외 진출을 통해 수출 증대를 희망하는 12개 국내 기업(주안·부평)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일본 굴지의 기업인 스미토모상사 협력기업들이 참여하여 현지 시장 상황에 적합한 제품과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하는 성과를 올렸다.

**남동산단에 '계약학과' 개설  
인천대-한국산업단지공단,  
인재 양성 업무협약**

인천대학교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계약학과'가 남동산단지공단 확대 운영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인천대학교는



지난 6월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남동산업단지 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학과' 운영에 힘을 쏟기로 했다.

'계약학과'는 산·학 협력 차원에서 대학과 협약을 맺어 관련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프로그램으로,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해 정원 외로 학과를 운영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인천대학교는 인천 지역 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학기에는 9개 학과가 개설돼 219명이 수업을 받았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산업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남동산업단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해 남동산업단지 구조조도화 사업에 적합한 인력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기 ISEY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개강 영국 SSE 과정 도입, 수준 높였다**



인천시 연수구는 지역 내에서 사회적 기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6월 24일 인천대학교에서 '제1기 ISEY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과정'을 개강했다. ISEY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는 인천대학교(1), 송도신도시에 소재한 기업체(SE), 연수구(Y)의 영문 이니셜로 산·학·관 공동 컨소시엄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총 3기에 걸쳐 100여 명의 사회적 기업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교육비, 기수 당 4천여만 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90% 지원받아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교과과정 운영을 맡은 인천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는 6개월의 밀도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했으며,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과정인 영국 SSE를 도입하였다. 강의는 모두 24회로 이뤄지며 교육과정 전반을 진행하는 인천대 교수진 외에 연세대, 한겨레 경제연구소 등 다양한 교수진들이 초빙된다.

**'제1기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인천대학교와 인천광역시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대학교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에서 주관한 '제1기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 수료식이 지난 6월 15일 인천대학교 미래관에서 열렸다. 이번 제1기 남북경협 인천아카데미는 4월 13일부터 6월 15일 까지 매주 수요일 인천대학교 미래관에서 진행되었으며 기업인, 시민단체, 공무원 등 총 60명이 수강하였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을 시작으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 육재희 전 현대산상무, 김현경 MBC 기자 등 남북관계와 경제협력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출강한 이번 아카데미는 다양하고 현실감 있는 강의로 수강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하반기(10월~12월)에 실시되는 제2기 아카데미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남북 평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하는 평화도시 인천의 대표적인 아카데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아동 교육 지원기관, 인천대 영재교육원 추가 지정**

인천광역시 남구청은 인천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취약계층아동 창의 논리적사고 향상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난 6월 23일 추가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취약계층아동 창의논리적사고 향상 지원서비스'는 남구청 개발 사업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재교육원을 통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큰 호응과 수요증가에 따라 영재교육 전문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천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우섭 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 추가 선정에 따라 지리적 여건, 서비스 가격 부담 및 서비스 제공대상 제한 등으로 선뜻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잠재성 있는 아동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어 주민의 사회서비스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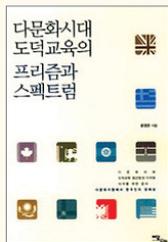
**무역학부 이찬근 교수, 정진기 언론문화상 경제·경영도서 부문 대상 수상**

지난 7월 15일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29회 정진기언론문화상'에서 무역학부 이찬근 교수가 경제·경영도서 부문 대상을 받았다. 정진기 언론문화상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과학기술 연구와 경제경영에 관한 저술로 국민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이찬근 교수는 저서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에서 기본적 금융 지식에서부터 고급 정보까지를 다양하게 아우르는 점이 높게 평가되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는 까다로운 이론을 역사적 발전사나 에피소드를 통해 풀어가 금융 입문자도 쉽게 읽을 수 있으며, 각론 위주로 발간된 기존 금융 관련 서적과 달리 금융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된다. 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외환·금융

위기가 빈발하면서 금융을 반사회적 이윤추구 활동으로 간주하는 왜곡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이 책에서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금융의 원리와 속성, 메커니즘을 규명해 금융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다문화시대 도덕교육의 프리즘과 스펙트럼』  
2011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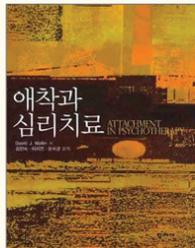
윤리교육과 운영론 교수의 저서가 2011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윤 교수의 저서 『다문화시대 도덕교육의 프리즘과 스펙트럼』은

다문화시대 도덕교육의 희망의 근거를 다양한 접근 방식인 '프리즘'과 각 프리즘이 연출하는 빛의 향연(스펙트럼)에서 찾고 있다.

제1부는 도덕교육의 정체성 논쟁과 도덕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중심으로 '도덕교육의 희망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해명하며, 제2부에서는 도덕교육의 학문적 정초 논의에서 핵심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는 윤리학과 심리학의 관점을 살펴본다. 제3부에서는 미학, 도덕신학,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도덕교육의 내용 체계 및 교수 방법의 내실화를, 제4부에서는 다중지능이론에 입각한 도덕수업과 인성교육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끝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의 문제를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해명하고 있다.

『애착과 심리치료』  
2011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창의인재개발학과 이지연 교수의 공동 역사가 2011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고 불교 심리학을 바탕으로 애착 연구의 세 가지 주요 결과를 치료자가 어떻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제1부는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Bowlby의 이론과 이후 Ainsworth의 연구,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Main과 Fonagy의 이론을 설명하고, 제2부에서는 애착과 self의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개관한다. 제3부에서는 애착 이론을 상담심리 임상 실제에 활용하는 부분을 기술하고, 제4부에서는 애착 유형별 환자들의 특성과 치료적 개입에 대한 내용을, 제5부에서는 임상 실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창업지원단,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실시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정영식)은 지역 고교생·대학(원)생 창업 동아리의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한 『인천대학교 창업동아리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시제품개발지원 사업'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생과 고등학생 창업동아리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 이를 사업화 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및 부품 구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과 학생의 활발한 창업을 유도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인천대학교는 창업지원단 주관하에 10개의 대학(원)생 창업 동아리의 창업아이템과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관하에 5개의 고등학생 창업동아리의 창업아이템을 선정·지원하고, 고등학교 창업동아리의 경우 오는 11월경 경진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수창업아이템으로 선정된 아이템은 개발비용 및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창업동아리 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들을 창업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양궁 기대주 성우경,  
세계 정상 향해 정조준

인천 양궁의 기대주 성우경(운동건강과학부 11)이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폴란드 레그니차에서 열리는 '2011년 세계유스양궁선수권대회'에 대학부 대표로 출전한다. 성우경은 지난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제29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남자 대학부에서 30m와 50m 1위, 90m 2위를 기록하는 등 절정의 기량을 보이고 있어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성우경은 선인고 재학시절 출전한 '2009년 세계유스양궁선수권대회' 주니어부문(18세 이하)에서 개인전 1위를 차지했었다. 임희정 인천대 감독은 "성우경은 침착하고 기복이 별로 없는 점이 장점이다."라며 "이번 유스대회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2관왕에 오르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인천대 창업지원단,  
어린이창업·발명캠프 개최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여름 방학을 맞아 인천 등 수도권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지난 8월 8~9일 인천대 송도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에서 '재희 어린이 창업·발명 캠프'를 개최하였다. 행사 첫날에는 '2% 창의적인 사고전환으로 발명왕이 되자', '재미있는 도전 과제를 체험하는 도전 창의성 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다음 날에는 '생활 속에서 찾는 발명 아이디어 쉽게 특허출원 하기', 회사 만들기, 기업가 정신, 창업 퀴즈 등 '도전 나도 창업 CEO'가 마련되어 참가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 발전기금 출연자 소개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 농협, 인천대에 발전기금 1억 쾌척

이군익 (농협중앙회 인천대학교출장소 지점장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6월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인천대학교에 학교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하였다. 농협은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고향사랑두배로예금' 상품을 개발, 예금 판매액(평잔)의 0.1%를 별도 적립하여 이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인천대학교와 공동으로 소년소

녀가장 및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쌀 200포를 연수구청과 남구청에 지원하는 등 '같이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농협 인천지역본부는 그동안 2억 5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인천대학교에 기탁하였으며 향후 매년 1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농협 직원들도 마찬가지이다. 농협중앙회 인천대학교출장소 이군익 지점장은 지난 2010년 1월 인천대학교출장소에 부임한 첫날 발전기금 담당자를 찾아가 '텐텐클럽(매달 10만 원씩 10년간 발전기금 기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1년 치 120만 원을 일시 기탁하였다.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MBA과정을 통하여 기부문화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가치를 배웠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는 이군익 지점장은 지난 2006년 특수제작한 지게의자에 아버님을 모시고 금강산과 중국의 태산 관광을 다녀오는 깊은 효심으로 한국과 중국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다. 또한 이 사실이 예화로 기재된 도서(청소년 명심보감)를 모교인 팔봉중학교에 기증하고, 방송 출연료 전액을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등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과 직원이 한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농협의 이웃 사랑 마음이 지역의 인재를 키워내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해본다.

후배를 향한 내리사랑,  
인천대의 미래를 밝히다

김병훈 (물리학과 92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인천대학교 재학 시절 근로 장학생으로 야간 경비를 했던 기억에, 미약하나마 후배들이 학문 탐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 고자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게 되었다는 김병훈 동문.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친환경에너지공학부 연구조교수

로 재직하며 그래핀(graphene) 관련 물질에서의 수소흡착 mechanism 및 고효율 태양전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인천대학교 재학 시절 물리학에 재미를 느껴 잠자는 것도 잊고 공부하며 학우, 교수님과 함께 우주에 대해, 물리에 대해 이야기하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그는, "인천대학교에서 배운 물리학의 기초과정들이 현재의 자신을 이끈 원동력이었다."라고 말한다. 현재 하는 일에 항상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김병훈 동문은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는 사람에게 꿈이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라며 항상 꿈을 버리지 않고 노력하는 인천대학교 후배들이 되길 바란다 고 조언하였다. 재학 시절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후배에게 돌려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릴레이에 동참한 김병훈 동문의 따뜻한 마음이 인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전해지리라 믿는다.

# 귀하의 고귀한 정성과 관심이 인천대학교를 세계 속의 명문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 발전기금 구분 및 용도

대학발전기금은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장학사업 등 전액 인천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투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구분	용도
일반 발전기금	기부하신 분이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일임한 기금으로, 대학의 중장기 제반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지정 발전기금	기부하신 분이 특정 대학(원), 학과(부)에 지정 출연한 기금
목적 발전기금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기금

## 기부 참여방법

**자동이체(CMS)** : 기부자가 직접 은행에 가는 수고 없이 기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매달 약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incheon.ac.kr>) 접속 후 신용카드로 발전기금을 기부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급여공제** : 본교 교직원에 한하여, 매월 급여에서 약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납부** : 대학에 방문하여 직접 기부하시는 방법입니다.

**ARS 모금전화** : **060-703-1212**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에 3,000원의 발전기금이 적립됩니다.

**무통장 입금** :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개설된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입금 후 전화를 주시면 기부금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1325-01-000611** (예금주 : (재)인천대학교발전기금)

## 예우 프로그램

구분	내용	PRESIDENT'S HONOR				PLATINUM HONOR	GOLD HONOR	SILVER HONOR	BRONZE HONOR	PARTNERSHIP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기부자 명예현장 및 예우	건물명칭 부여	●								
	홍상/존상 제작	●	●							
	부조상 제작	●	●	●	●					
	강의실 명칭 부여			●						
	사진동판 제작 (180mm×200mm)					●	●			
	사진동판 제작 (180mm×50mm)							●		
	동판명패 제작 (180mm×50mm)							●	●	
학교시설 이용편의	도서관 평생 이용	●	●	●	●	●	●	●		
	주차장 무료 이용	●	●	●	●	●	●	●		
기념품 및 간행물	감사패	●	●	●	●	●	●	●	●	
	기념품(생일/창립일)	●	●	●	●	●	●	●	●	
	정기간행물	●	●	●	●	●	●	●	●	●
	감사문	●	●	●	●	●	●	●	●	●
	개인달력 제작	●	●	●	●	●				

\* 상기 예우 프로그램은 후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큰 사랑으로  
더 크게, 더 높게 도약합니다.



인천대학교  
University of Incheon

보내는 사람

주소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1.6.1 ~ 2012.5.30  
인천우체국  
승인 제40075호



인천대학교  
University of Incheon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12-1)  
406-772

# Thanks to...

##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해 주신 분들

2011.06.01 ~ 2011.08.17

### 100만원 이상

성명	대학과의 관계	기부액
농협중앙회인천지역본부	기업	100,000,000
박상언	교수	10,000,000
이엘씨(ELC)영어교육	기업	7,594,970
(주)육일칠	기업	3,000,000
잉글리쉬앤	기업	2,919,600
GS건설(주)	기업	2,000,000
변윤식	교수	1,500,000
대림산업	기업	1,000,000
롯데건설(주)	기업	1,000,000
삼성물산(주)	기업	1,000,000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기업	1,000,000
(주)세연글로벌	기업	1,000,000
윤철형	동문	1,000,000
장현승	동문	1,000,000
(주)백석개발	동문	1,000,000

### 100만원 미만

성명	대학과의 관계	기부액	성명	대학과의 관계	기부액	성명	대학과의 관계	기부액	성명	대학과의 관계	기부액
더월미디어	기업	500,000	김무성	동문	190,000	임 순	교수	75,000	문종욱	동문	30,000
최원보(대영밴드)	동문	500,000	곽문선	동문	150,000	곽용성	직원	60,000	박도균	동문	30,000
English Season 1	기업	484,500	권기체	직원	150,000	김규원	교수	60,000	박명순	직원	30,000
배양섭	교수	400,000	김광열	동문	150,000	김순옥	직원	60,000	박일총	직원	30,000
고병만	동문	300,000	김길원	교수	150,000	김영구	교수	60,000	박정희	동문	30,000
김기웅	교수	300,000	김승환	직원	150,000	김태영	직원	60,000	배가람	동문	30,000
김영관	교수	300,000	김영주	직원	150,000	김현진	교수	60,000	서상범	직원	30,000
김장성	동문	300,000	박종욱	교수	150,000	박 웅	동문	60,000	신천수	직원	30,000
김주영	동문	300,000	신원태	교수	150,000	박종석	직원	60,000	신현호	동문	30,000
김혜영	동문	300,000	우인성	교수	150,000	서재신	직원	60,000	윤병선	동문	30,000
김희철	동문	300,000	우종택	교수	150,000	손정숙	직원	60,000	이정희	직원	30,000
박인호	교수	300,000	유정훈	동문	150,000	신동태	동문	60,000	이중훈	동문	30,000
박창화	교수	300,000	윤 용	동문	150,000	안춘순	교수	60,000	정수민	동문	30,000
배진교	동문	300,000	이미가엘	교수	150,000	유현국	동문	60,000	채수희	학부모	30,000
손천택	교수	300,000	최호규	동문	150,000	윤덕영	동문	60,000	추녀영	동문	30,000
신동욱	동문	300,000	김길남	동문	100,000	이선식	직원	60,000	한상길	동문	30,000
유혜경	동문	300,000	김숙진	동문	100,000	정구천	직원	60,000	강현자	동문	20,000
윤찬원	교수	300,000	김장근	학부모	100,000	조윤구	동문	60,000	김은희	동문	20,000
이병수	교수	300,000	김진우	동문	100,000	최명종	직원	60,000	성정욱	동문	20,000
이상락	교수	300,000	임주택	동문	100,000	김병훈	동문	50,000	유병순	동문	20,000
이승민	동문	300,000	강경태	동문	90,000	은종민	개인	50,000	이병기	동문	20,000
이은주	교수	300,000	김교홍	동문	90,000	고민정	교수	40,000	임경남	개인	20,000
이재석	교수	300,000	김정곤	교수	90,000	김희강	동문	40,000	최현아	동문	20,000
이종열	교수	300,000	김찬주	교수	90,000	오복자	동문	40,000	한현미	개인	20,000
이찬식	교수	300,000	박은경	교수	90,000	이동엽	동문	40,000	홍주학	동문	20,000
장영애	교수	300,000	신호수	교수	90,000	이창석	학부모	40,000	윤희량	동문	10,000
전인갑	교수	300,000	우창기	교수	90,000	강병민	동문	30,000	이강우	동문	10,000
충남집	기업	300,000	윤영돈	교수	90,000	김성은	동문	30,000	ARS후원금	기타	5,400
하숙경	동문	300,000	이승열	직원	90,000	김순중	동문	30,000	(060-703-1212)		
함정호	교수	300,000	임찬옥	직원	90,000	김재철	동문	30,000			
이갑영	교수	200,000	장인우	교수	90,000	김종인	직원	30,000			
이군익	동문	200,000	조한장	동문	90,000	김지훈	동문	30,000			
이재성	동문	200,000	한상철	교수	90,000	김치용	동문	30,000			
최근영	동문	200,000	한상혁	직원	90,000	김현숙	직원	30,000			
최두원	동문	200,000	유혜경	교수	75,000	김현진	동문	30,000			



University of  
Incheon

송도캠퍼스 406-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12-1)  
제물포캠퍼스 402-808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165 (도화동 193-6)

[www.incheon.ac.kr](http://www.incheon.ac.kr)